

제주 생명의 근원 용천수가 사라지고 있다

조사 결과 올해 매립·멸실·위치확인 불가 22개소 총 656개소 확인... 향토유산 지정 방안 등 제시

제주지역 용천수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어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추진된 용천수 전수조사 결과 올해 매립·멸실·위치확인 불가 용천수는 22개소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그동안 조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용천수 17개소가 추가로

조사되면서 제주지역 용천수는 총 656개소로 확인됐다.

용천수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의 경우 대부분 먹는 물 수질기준 10mg/l 이하로 조사됐다.

중산간 지역은 1리터당 평균 1.6mg, 하류지역은 1리터당 5.6mg, 수변공간은 1리터당 8.6mg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25일 제주연구원에서 '용천수 전수조사 및

가치보전·활용방안 마련' 영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천수 정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1 용천수 보안 관리계획 수립' 보안을 위한 용천수 전수조사와 용천수의 향토유산 지정방안, 용천수 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주민 참여형 용천수 관리 시범사업 등 용천수의 가치 활용과 합리적인 활용성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용천수 가치 발굴 및 활용성 제고 방안으로는 구술채록, 역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발굴, 용천수의 향토유산

지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사)제주생태관광협회에서 조천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참여형 용천수 관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 용천수 관리방안도 나왔다.

또한 용천수의 무분별한 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용천수 정비 가이드 마련을 위한 정비원칙 등을 세웠다.

도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최종안을 올해 12월 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020 제주애 빠지다 15 김희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본부장



제2의 고향 제주에서 23년째 아동 복지의 길을 걷고 있는 김희석 본부장. 이상민기자

“아동 후원 열기 어느 지역보다 뜨거워”

제주서 23년째 아동 복지의 길 첫 발령 후 부인 만나 뿌리내려 부임 후 3년간 아동 250명 상담

김희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49)의 고향은 경상북도 경산시다. IMF 여파로 취업 한파가 몰아친 1997년 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입사 시험을 봤다. 면접관 앞에서 김 본부장은 “뽕아만 주십시오, 제주에서라도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당차게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듬해 발령 받은 첫 부임지가 제주였다. 제주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제주 부임 후 얼마되지 않아 고향과 가까운 경상북도 포항시로 발령 받았지만 그는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그는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23년째 사회 복지 일에 매진하고 있다.

가정은 250명에 달했다. 낮에는 대부분 학교에 가기 때문에 주말과 밤에도 쉴새없이 아이들을 만났다.

상담은 서로의 마음을 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높았다. 경북이 고향인 김 본부장에게 제주어는 낯설기만했다.

김 본부장은 “소년·소녀 가장 대부분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찾아가려 조부모에 길을 물어도 알아 들을 수 없으니 힘들었다”며 “제주어 사전을 빌려 밤낮으로 공부했다”고 전했다.

또 김 본부장은 “순환 근무 영향으로 사회복지 직원이 2년 단위로 바뀌다보니 아이들 입장에선 '아 이 사람도 곧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아이들과 자주 만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 주말마다 캠프를 가고, 함께 봉사활동도 다녀온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고등학교 때 장애인아동보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간 것을 계기로 사회 복지 일에 뛰어들었다. 그는 “봉사활동을 갔을 때 가슴이 뛰었다. 그 때부터 아동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계적으로 아동을 돕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자를 공부한 뒤 어린이재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로 첫 발령 받은 당시 제주의 복지 인프라는 그야말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복지관은 3곳에 불과했고,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력도 30~40명에 그쳤다. 그렇다고 열악한 외부 환경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찾아 상담을 하기 위해 그의 표현을 빌려 '쥐 잡듯이' 제주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부임 후 3년간 김 본부장이 만난 소년·소녀

가정은 250명에 달했다. 낮에는 대부분 학교에 가기 때문에 주말과 밤에도 쉴새없이 아이들을 만났다.

상담은 서로의 마음을 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높았다. 경북이 고향인 김 본부장에게 제주어는 낯설기만했다.

김 본부장은 “소년·소녀 가장 대부분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찾아가려 조부모에 길을 물어도 알아 들을 수 없으니 힘들었다”며 “제주어 사전을 빌려 밤낮으로 공부했다”고 전했다.

또 김 본부장은 “순환 근무 영향으로 사회복지 직원이 2년 단위로 바뀌다보니 아이들 입장에선 '아 이 사람도 곧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아이들과 자주 만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 주말마다 캠프를 가고, 함께 봉사활동도 다녀온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고등학교 때 장애인아동보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간 것을 계기로 사회 복지 일에 뛰어들었다. 그는 “봉사활동을 갔을 때 가슴이 뛰었다. 그 때부터 아동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계적으로 아동을 돕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자를 공부한 뒤 어린이재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로 첫 발령 받은 당시 제주의 복지 인프라는 그야말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복지관은 3곳에 불과했고, 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력도 30~40명에 그쳤다. 그렇다고 열악한 외부 환경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찾아 상담을 하기 위해 그의 표현을 빌려 '쥐 잡듯이' 제주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부임 후 3년간 김 본부장이 만난 소년·소녀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사업 18개 완료... 6개 연내 마무리

제주시는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4개 노선에서 (20.07km)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인 제2도시우회도로 사업을 포함한 18개 노선 (17.67km)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다.

제주시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거로길-문화아파트, 구산마을, 변영로-화북거리, 봉개, 부림랜드~110도로, 금산마을 등 6개 노선 (2.4km)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26일 김민덕기념관에서 (사)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정자) 주최로 열린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에서 원희룡 지사 등 참석자들이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머플러를 내보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도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인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무형문화재 3개 종목에 대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수교육조교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보유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8일 도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는 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물 굴리는 노래 강명인(62, 안덕),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김서진(51, 대정), 제17호 진사대소리 강순희(53, 애월)씨다.

도는 이번 전수교육조교 인정과 더불어 도무형문화재 제9호 방앗물 굴리는 노래,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제17호 진사대소리, 제22-1호 행상소리 등 총 6개 종목에 대해 전수장학생 12명을 추가 선정했다.

진선희기자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대상 확대되나

서귀포시, 농가에 253억 지급 농림부 제도 개선 적극 검토중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수령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지역 내 1만7564농가에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 253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역 내 농가들에 지급됐던 농업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등 지급액 100억여원에 비해 갑절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소농직불·면적직불로 나

뉘 시행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영농종사시간·농촌거주기간 등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1ha당 100만~134만원으로, 구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된다. 소농·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기존에 비해 갑절 이상 상향 조정됐다.

공익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미이행 60농가를 대상으로 12월 중 이의신청 접수·검토 후 1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공익형직불제 지급금 수령 대상(본보 5월 19일자 보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공익형직불제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이의신청·반발이 잇따라 제주도·농림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지난 9월엔 국회 권성동 의원(무소속)이 농업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적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지급 조건을 삭제, 직불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주도·농림부 등에 건의했다”면서 “이같은 취지를 감안,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ihyeon@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